

[서 평]

열정과 냉정 사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만나는 방법

-이시카와 이쓰코 지음, 손지연 옮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삼천리, 2014)-

박정애*

차례

1. 왜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가
2. 열정적인 공감과 냉정한 직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의 내용
3. 다시 내셔널리즘과 젠더 문제를 생각하며
4. 다시 ‘위안부’ 피해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평화사상가이자 시인인 이시카와 이쓰코가 낸 책의 개정판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글이다. 일본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둘러싼 주제에 한정해서 우에노 지즈코 책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함께 다뤘다. 이 독후감은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과 편지 방식의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전임연구원

부드러운 글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어 내용의 폭과 깊이는 만만치 않다. 구술과 역사적 배경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점령지 문제, 전쟁과 인권 문제, 젠더·민족·계급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시카와 이쓰코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접근하는 저자의 위치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저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피해자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일본인으로서’ 끊임없이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 이는 ‘일본인’ ‘여성’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일본인으로서 사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개인과 국가의 동일시 문제로서 경계하는 우에노 지즈코와 비교된다.

저자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며 공감대의 온도를 맞추려고 애를 쓴 만큼 독자들, 특히 청소년/년에게 일본군‘위안부’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 층위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려 했던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채워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위안부’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첫 마음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일본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위안부’ 역사 지우기의 첫 단계로서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건 전쟁과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존재한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드러내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소망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법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보태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이것이 해결을 위한 ‘위안부’ 문제 찾기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핵심어 : 일본군‘위안부’, 트라우마, 증언, ‘위안부’문제해결운동, 이시카와 이쓰코, 우에노 지즈코, 전시 성폭력, 전쟁과 평화, 내셔널리즘과 젠더

1. 왜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가.

김학순의 공개증언일인 1991년 8월 14일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2010년은 국내외 여성·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한지 20년을 넘기는 해였다. 운동의 역사가 20년이 넘도록 쌓였으면 해결된 문제들도 빛을 발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2010년대 들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시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눈에 띄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그간 일본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가해책임을 회피해 왔었는데, 2012년에 제2차 아베정권이 출범한 뒤 더욱 노골적으로 '위안부'의 강제성과 성노예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보고서를 내었다. 1993년 8월에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던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일본정부 및 군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뜻을 표현한 담화이다. 그런데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는 고노담화 작성에 기초가 되었던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신뢰성에 의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정부의 최종 목표는 피해를 이야기하는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을 흠집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최초의 공개 증언자 김학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 성매매관광(일명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하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윤정옥의 만남으로부터¹⁾,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해방된 뒤 서울역에 나가 '끌려간 내 또래의 여자 아이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를 궁금해 했던 1945년의 윤정옥²⁾으로부터 시작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2014, 제1부 제1장 참조.

2) 윤정옥 구술, 김수진 정리, 『“애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109~111쪽.

되지만,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쓰기의 시작은 김학순 부터이다. 김학순이 피해를 말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여성 문옥주, 김복선이 나왔고, 호주에서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이 나왔다. 김학순의 증언으로 일본군이 이용했던 위안소는 '위안'의 공간에서 폭력의 공간으로 재규정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2010년대에 들어와 격화된 피해자 증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격 조짐과 맞물려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에 대해 다시 떠올리는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확실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이 주목받았던 시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중반이다. 1990년대에는 역사적 진상규명이 충분치 않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이 주목받았다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재현, 기억과 역사라는 측면에서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이 재접근되었다³⁾. 이에 견주면 2010년대 '위안부' 피해여성의 증언은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주체로서 '위안부' 피해여성이 내보인 용기와 존엄, 감동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체의 활동가와 시민들을 깨우치고 위로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서 '위안부' 피해여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 윤미향이 쓴 『20년간의 수요일』(웅진주니어)⁴⁾이 그렇고, 또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관여했던 활동가·연구자들이 2014년에 발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가 그렇다. 운동 20년을 지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도 계속 힘을 내기 위해 활동가들은 피해여성을 처음 만났던 그 때로 다

3)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 2013, 37쪽.

4) 책의 부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치는 당당한 희망'이다. 글쓴이 윤미향은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다.

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피해여성을 처음 만났던 그 때로 돌아가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국인 활동가·연구자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2010년대에 들어와 일본인 여성 활동가·연구자가 1990년대에 쓴 두 권의 책이 나란히 개정·증보되어 나왔다. 평화사상가이자 시인으로 반전, 반핵 운동에 헌신해 온 이시카와 이쓰코(石川逸子)가 쓴 책과 도쿄대 명예교수로서 일본의 비판적 페미니스트로 이름 높은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가 쓴 책이 그것이다. 이시카와 이쓰코는 1993년에 발간했던 『‘중군위안부’가 된 소녀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2013년 『일본군‘위안부’가 된 소녀들』로 다시 냈으며⁵⁾, 우에노 지즈코는 1998년에 쓴 책 『내셔널리즘과 젠더』에 제2부와 제3부를 덧붙여 2012년에 『신판 내셔널리즘과 젠더』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했다.⁶⁾ 개정된 두 책은 각각 『일본군‘위안부’가 된 소녀들』,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한국에 번역, 소개되었다.

이 글은 위의 번역본 두 권을 읽고 난 후의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시카와 이쓰코의 책을 읽고 나서 ‘위안부’ 연구자로서,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던 반(半)활동가로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일본정부의 ‘위안부’ 역사 지우기는 본격화되고 있고, ‘위안부’ 생존자는 줄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시민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위안부’ 관련 프로젝트 대여섯 가지에 참여하고 10년이 넘게 대학교 강의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해결의 기미는 느끼지 못하

5) 石川逸子, 『『從軍慰安婦』にされた少女たち』, 岩波ジュニア新書, 1993; 石川逸子, 『日本軍‘慰安婦’にされた少女たち』, 岩波ジュニア新書, 2013.

6)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新版』, 岩波書店, 2012.

고 오히려 지쳐가기만 할 무렵 드는 의문이었다.

웁긴이의 말에 따르면 이시카와 이쓰코는 1991년 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김학순의 용기에 촉발되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⁷⁾. 우에노 지즈코 또한 1991년 12월, 독일 체류 시에 김학순이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깊은 충격을 받고 귀국 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원활동에 파고들었다고 밝히고 있다(14쪽). 두 책을 읽으면서 나의 ‘처음’이 생각났다. 일제 식민지 시기 신여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던 나를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변신시켰던 그 ‘처음’ 순간 말이다. 그 기억 속에도 역시 김학순이 있었다. 1992년 5월,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대동제를 지루해하며 교정을 걷고 있다가, 김학순 증언집회가 열리고 있던 교내 어느 강의실에 홀린 듯 들어갔다. 당시 김학순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든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밀려올라와 내내 눈물을 쏟아 나온 기억뿐이다. 그리고 신여성으로 석사논문을 썼던 1999년 8월, 여성사 연구자라는 이유로 동료에 의해 2000년 법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대협⁸⁾에 불러 나왔고, 수요시위에 처음 참석했다. 그리고 그날 수요시위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김학순을 보고 쏟았던 눈물과 같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만들어낸 눈물이었다.

7) 웁긴이는 저자가 1991년 8월에 김학순의 증언을 들은 것처럼 적고 있지만, 저자는 2014년에 쓴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부분에서 김학순이 실명을 밝힌 것은 1991년 말이라고 적고 있다. 1991년 12월, 김학순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2명과 함께 일본의 도쿄 지방법원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정식명칭은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본래 익명으로 제소하기로 하였으나, 제소 직전 김학순이 이름과 얼굴을 드러냈다. 김학순은 12월 6일 재판일에 하얀소복을 입고 도쿄 지방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서 김학순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집회를 했는데, 이때 깊은 인상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일본인 활동가들이 여럿이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71쪽, 370쪽). 이시카와 이쓰코 또한 이때 김학순의 증언을 듣고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약칭. 이하 정대협이라고 표기.

이시카와 이쓰코의 책은 왜 내가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보고 무작정 울었는지, 그 이후 어째서 '위안부' 관련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는지, 하나의 실마리를 내보이는 듯 했다. 책을 처음 쓴 1993년부터 다시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정판을 낸 2013년까지 이시카와 이쓰코를 '위안부' 연구에 매어놨던 것은, 일본인으로서의 사죄의식, '위안부' 피해자와 동세대인으로서의 책임의식, 또 같은 여성으로서의 고통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나의 눈물의 가장 큰 근원은 여성으로서의 공감이었던 듯하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상상할 수 있게 된 여성의 마음, 곧 집에서 떠밀린 20대 전후의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 원치 않는 '성적 관계'가 주는 공포와 고통, 순결하지 않은 여자를 타락한 존재로 취급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야했던 '위안부' 생존자들의 '억척스러움'과 '졸림', 외로움 등을 가히 짐작하지는 못해도 그럼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감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어쨌든 한 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래서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위안부' 피해여성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부채의식 또한 있었으리라.

내게는 의미 있는 것이지만, '위안부'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나의 마음은 이시카와 이쓰코의 마음에 비교하면 어쩌면 사소하다 할 것이다. 책을 이루는 글자 하나 하나에 저자의 간절함이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인 여성으로서 이시카와 이쓰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하는 내셔널리즘 문제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다. '가해국의 소녀였던 책임으로서(7쪽)', '몸쓸 짓을 한 장교들과 같은 민족인 나로서(24쪽)', '[피해자의 증언] 앞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과 깊은 죄에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었다(186쪽)', '일본 여성인 저는 오래도록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197)'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일본인이라는 저자의 '내이션(국가)'은 저자의 집필방향을 만들어가는 끈질긴 화두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할 때 편치 않았을 것이 분명한 일본인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저자의 글쓰기는 우에노 지즈코의 책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떠올리게 한다. 이시카와 이쓰코의 책을 읽고 있노라면 저자의 의문과 문제제기로 가득차 있는 우에노 지즈코의 책 내용에 말을 걸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시카와 이쓰코의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하되, 일본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둘러싼 주제에 한정해서 우에노 지즈코 책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시카와 이쓰코의 책이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실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우에노 지즈코의 책은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단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전제로 내셔널리즘과 젠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의 내용을 유사한 범주로 비교하면서 검토하기는 어려웠다. 이 독후감은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것이다.

2. 열정적인 공감과 냉정한 직시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의 내용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은 '소녀'가 등장하는 감성적인 제목에 부담스럽지 않은 책 두께(전체 245쪽), 그리고 편지 방식의 부드러운 글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어 내용의 폭과 깊이는 만만치 않다. 구술과 역사적 배경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점령지 문제, 전쟁과 인권 문제, 젠더·민족·계급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 발간된 일본어 초판을 직접 구해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교해 보니 목차 구성은 똑같았다. 초판 때부터 이 많은 주제들을 포괄하는 목차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저자가 1991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하고 1년 여간 취재하고 집필해서 1993년 6월에 초판을 발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꽤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내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한국어 번역본에는 1993년 이후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여성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1993년 이후 발간되거나 채록된 연구문헌이나 증언내용도 포함하였다. 저자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책 전체 내용을 고치고 가다듬은 수고가 역력하다.

책은 열 네 살의 일본 소녀 아키코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친구 유미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시작한다. 청소년/년 독자에게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저자가 설정한 가상 상황이다. 아키코는 이웃에 사는 가와세 마키코라는 여성, 곧 '전쟁 이야기라면 끔찍이 싫어하시고 할머니라고 부르면 정색하시던 분'을 따라 '위안부' 피해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한 일에 대해 친구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편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현실의 일상 속에서 품게 된 의문과 깨달음 등에 관해 적는다. 편지 사이 사이 '가와세 마키코의 르포'라는 형식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위안부' 피해 사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할머니 비슷한 여성'인 가와세 마키코는 1993년 당시 일흔 살이었던 저자 자신의 아바타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저자의 서술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근대 일본 국가의 성격, 식민지 지배 및 점령지 확대, 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등 근대 동아시아사를 개관할 때는 일반 역사서처럼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기록한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인 전시 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 내용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면에 배치한다. 증언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비롯해 일본인, 중국인, 타이완인, 인도네시아인 등 일

본의 전쟁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고루 소개하였다. 증언 당시의 피해여성의 육체적, 정서적 상태와 증언을 듣는 이들의 태도와 고민까지도 함께 기록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민간 국제 공청회에서 중국인 피해자 완아이화(萬愛花)의 증언을 듣기로 한 날, 완아이화가 언젠가 증언을 하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기절을 한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된 주최측에서 증언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다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듣기로 했다는 얘기를 소개하는 식이다(187~190쪽).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은 증언집이 처음 나온 때는 1993년 2월, 한국에서였다⁹⁾. 따라서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저자가 참고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증언집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대신 저자는 직접 발로 뛰며 증언내용을 채록하였다. 국제공청회나 강연장을 쫓아가 증언을 청취하거나 직접 ‘위안부’ 피해여성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했던 것이다. 가히 ‘르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 사이 사이에는 피해여성의 증언과 만나는 이시카와 이쓰코의 모습이 배여 있다. 김학순의 증언을 “고개를 푹 숙이고 경청”했다는 부분(23쪽)이나, 강덕경의 체험을 듣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언급(160쪽)이 그렇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저자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서 대부분 비롯되었겠지만, 나는 여성으로서 표현하는 공감과 죄책감이라는 차원에서 저자의 태도에 공명했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나 또한 격렬하게 느꼈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동원과정과 위안소 생활, 귀환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녀들의 것이었던 공포와 고통, 상처와 고독이 내게로 전이되어 오는 듯해 전율이 오다가도 문득 어떠한 좌절감에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 좋게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난 내가 감히 그 트

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연구회 편,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라우마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란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시카와 이쓰코의 경우는 동세대 일본인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공감’보다는 ‘죄책감’을 앞세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냉정한 직시 덕분에 초판이 출판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더욱 후퇴한 시점에서 - 다시 책을 들춰보고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내가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아키코와 유미, 두 소녀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이다. ‘위안부’ 피해여성의 삶이 ‘소녀’와 ‘할머니’로서만 기억되고 있는 현실¹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사실이 책은 제목에 ‘소녀’가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했다. 다만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관계하는 활동가들이 자주 내세우는 ‘소녀’에는 ‘순진하고 순결한 소녀’라는 이미지를 넘어 좀 더 복잡다단하고 실천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요한다. 순수하고 용감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타협이 없는 ‘소녀’ 이미지와 과거 ‘위안부’ 피해여성과 같은 연배로서 ‘위안부’ 피해여성과 소통하는 현실의 ‘소녀’ 이미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¹¹⁾.

이 책에 등장하는 아키코와 유미는 후자의 이미지에 속하는 소녀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처음 접하고 ‘우리 또래(18쪽)의 이야기’로서 충격을 받는 한편, 역사적 실태를 알기 위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순수한 사람의 관점에서 의문을 느낀다. “군인들이 ‘위안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까지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좀 다른 사람 취급은 받았겠지만. 그런데 왜 모든 일본군이 ‘위안소’를 찾아서 여자들을 괴롭혔던 것일까?(115쪽)” 라고 질문하는 식이다.

이러한 의문은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성희롱을 일삼던 학교 교사를 노려보는 용기를 내면서 학교에

10) 박정애,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담다-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253쪽.

11) 박정애, 위의 글, 254쪽.

건의서를 올리거나(28쪽), 한국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친구를 위하여 학급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연극을 기획하면서 친구에게 한국인 이름을 찾아준다(116쪽, 150-153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해결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저자의 메시지를 두 소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의 신체는 어느 한 부분도 장난감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211쪽)”라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싶을 것 같아. ...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섹스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최악일 거야. 그게 강간이 아니고 뭐겠어?(213쪽)”라는 발언은 저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면 훈계가 됐겠지만, 소녀들의 발언 속에서 원칙과 그것을 잊은 부끄러움으로서 가슴을 친다.

저자는 책의 개정판에서 소녀들의 20년 후를 그렸다. 아키코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아기를 낳고 아키코의 언니 아사코는 중학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가 되었다. 아키코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유미는 지역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데 분주하다. 가와세 마키코로 등장하는 저자가 20년 전에 그랬듯이 말이다. 유미는 아키코의 아기가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가장 뒤끝 없는 화해는 역시 미래세대의 몫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은 그 화해의 초석을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저자의 마음이 읽힌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해법은 ‘이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어차피 이상을 보고 나아갈 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3. 다시 내셔널리즘과 젠더 문제를 생각하며

이시카와 이쓰코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

는 저자의 위치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저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와 피해자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일본인으로서' 끊임없이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 일본인이라는 위치성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글쓰기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1998년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셔널리즘을 초월한 페미니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다음해인 1999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고¹²⁾ 그 후 얼마동안 이 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에서 논쟁을 벌였다. 우에노 치즈코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우에노 치즈코가 개정판에서 밝히고 있듯이 '책임주체' 문제였다¹³⁾. 내셔널리즘을 초월했을 때 식민지 지배 책임, 전쟁 책임의 주체로서 일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말이다.

2012년에 낸 개정판(한국어 번역본은 2014년)에서 우에노 치즈코는 이 책을 둘러싼 그간의 오해와 비판이 '오해와 곡해'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젠더 분석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초월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우에노 치즈코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 또한 동의하고 있으므로 판지를 걸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수 있는 감양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해와 곡해'에 불과하다고 우에노 치즈코가 치부한 비판자들의 『내셔널리즘과 젠더』 독해가 초판의 글쓰기에서 저자 스스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점검했어야 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2012년의 시점에서 초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여기에 새로운 내용¹⁴⁾을

12)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13)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현실문화, 2014.

14) 초판의 내용은 제1부라는 제목으로 거의 그대로 신고 제2부 전쟁이 기억과 망각, 제3부 그 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새로 덧붙였다. 전체 270쪽의 분량 가운데 새로 덧붙인 내용은 94쪽이다.

덧붙였을 뿐인 개정판을 내는 일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야 했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번역본까지 나왔다. 현 시점에서 우에노 지즈코는 어떠한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자의 의문과 모호한 문제제기로 가득한 그녀의 책은 새로운 의문을 낳는다.

‘일본인’이라는 강제된 위치는 일본군‘위안부’ 해결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에노 지즈코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개정판에서 우에노 지즈코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이 있으며 ‘일본인’ ‘여자’라는 동일성 안에서 본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단언한다(241쪽).

그러나 초판에서 ‘한국에 간 일본의 젊은이가 과거 일본의 지배를 알고 놀라서 울면서 사죄한 일’을 두고 그 젊은이가 ‘국가와 자신을 이렇게까지 간단히 동일시하는 단순함에 공포를 느꼈다’고 쓴 내용을 개정판에도 그대로 실고 있다¹⁵⁾. 그간 비판을 많이 받은 이 서술에 대해 저자는 개정판에서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 이외의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에피소드였다고 밝히고 있는데(237쪽), 일본 젊은이가 한 일은 ‘과거 일본의 지배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사죄를 한 일’뿐이다. 이를 우에노 지즈코가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위험성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의 행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에노 지즈코의 입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모호할 뿐이다.

“고개를 푹 숙이고” 김학순의 증언을 들었다는 이시카와 이쓰코가 일본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은 결과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본의 탄압을 받고 차별을 겪었다(131-139쪽).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제도 하에서 일본인 여성들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된 군인들이 일본인 여성 다수를

15) 초판의 200쪽, 개정판의 173쪽.

‘위안부’로 접했을 때 겪을 정신적 충격이나 ‘군국의 어머니’로서 야마토 민족을 최대한 재생산해야 한다는 일본의 정치적 고려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위안부’로 동원되었다(144-145쪽). 이시카와 이쓰코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었다면 무사할 수 있었을까?(25쪽)’라고 느끼는 죄책감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위안부’ 동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자신의 위치성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은 이시카와 이쓰코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일본인으로서 죄책감을 가지는 이시카와 이쓰코의 태도 어디에서 우에노 지즈코가 지적하는 ‘개인과 국가의 동일시로부터 오는 위험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 차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시카와 이쓰코의 ‘행동’과 우에노 지즈코의 ‘심각한 문제인식’ 정도의 거리 차이로 드러난다.

우에노 지즈코는 자신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¹⁶⁾,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향은 민족주의나 식민지들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을 넘어선 젠더 분석이어야 하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후 전 세계를 분할했던 ‘제국’과 식민지/점령지의 민족 문제를 중시하되 어떠한 순간에도 젠더 관점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에노 지즈코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하는 민족주의 비판이 이론만 앞선 앙상한 언어로 이루어져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리고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 이후 여성·시민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장되는 과정을 걸어왔다. 내셔널리즘에 의지한 운동단체라고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정대협이

16) 개정판에도 수록한 초판 후기에 “이 책은 언뜻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인(현재적인) 문제를 논했다고 생각한다”고 쓰고 있다(178쪽).

‘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면 아이러니이다. 정대협 운동의 민족주의 성격은 2000년대 이후 최대의 이론적 쟁점이 되어 왔고, 여기에 『내셔널리즘과 젠더』 초판 또한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후 “담론적 경합의 장 속에서 ‘위안부’ 운동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으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경계들의 이동과 충돌, 접합 지점들을 보여주면서 성별화된 민족주의가 스스로 내파되는 양상”¹⁸⁾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대협 운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탈각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2000년 이전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 활동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셔널리즘의 문제점을 논한 『내셔널리즘과 젠더』 초판의 내용이 2010년대에도 거의 수정 없이 개정판으로 발간된 것은 문제가 있다. 우에노 지즈코 자신이 지적했듯이 ‘위안부’ 문제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일”(13쪽)이다. 따라서 2010년대의 개정판은 2000년 이후 10년의 변화와 성과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덧붙인 내용에서 저자는 ‘위안부’ 운동의 성과로서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의 인식 확립, ‘위안부’ 소송의 성과로 보이는 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다양한 수준에서 성립한 NGO의 국제 연대를 꼽았다(269-270쪽). 하지만 한국 정대협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1990년대 초중반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한국 내의 민족 담론을 비판한 것에 대한 비난도 ‘일본인인 당신에게 그것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238쪽)고 대응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인식범주의 탓에 갇혀서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갈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17) 다만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정대협 비판이 1990년대 초중반 작성된 야마시타 영애의 논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8)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포스트/ 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53권 3호, 2010, 54쪽.

특별히 내셔널리즘과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시카와 이쓰코가 '위안부' 문제에 얽힌 민족과 젠더 문제에 답하는 방식은 이렇다. 책을 열면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가니타 여성마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여성 시로다 스즈코(城田すずこ)의 이야기다. 그녀는 도쿄에서 큰 제과점을 하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가게가 기울면서 '사창가'로 팔려갔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팔라우섬까지 흘러갔고, 결국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시로타 스즈코는 간신히 살아남아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팔라우섬에서 그녀와 함께 지냈던 조선인 소녀들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울부짖는 통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조선인 여성들의 혼을 달래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가니타 여성마을'에 진혼비를 세우고 '아! 종군위안부'라는 글을 새겨 놓는다(15-18쪽).

이시카와 이쓰코는 전쟁 피해의 층위를 생산해낸 과거의 민족과 젠더 범주를 냉정하게 직시하지만 '위안부'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피해자 중심의 방식에는 열정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시로타 스즈코의 이야기를 접하면 일본인 여성들이 식민지, 점령지 여성들과는 다른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비난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조선인 여성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로타 스즈코의 마음은 한국인 여성들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이시카와 이쓰코는 병사로서 동원됐던 - 대부분 일본인인 -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인자와 성폭력 가해자로 변해갔는지를 더듬는다. 군대는 신병훈련 과정에서 살아있는 포로에 대한 '찌르기' 훈련 등을 하며 평범한 남자를 전쟁터의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괴로워하지만 어느새 익숙하게 되어 새로 신병이 들어오면 스스로 선임이 되어 신병을 다시 '괴물'로 만든다는 것이다(82-83쪽). 그리고 병사를 '성욕의 노예'로 취급하여 위안소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강간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오히려 강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82쪽).

평화사상가라는 자기 소개에 걸맞게 이시카와 이쓰코는 사람을 '비인

간'화시키는 전쟁의 속성에 주목한다. 위안소 안에서 가해와 피해 구도를 찾기보다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둘러싼 환경을 놓고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논한다. 그렇다고 군대가 의도한 성폭력 가해에 편승한 병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평범한 남자들이 병사가 된 순간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괴물'들이 다시 재생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일본의 근대 국가의 기획 아래서 가부장제 문화에 편승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전쟁터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던 병사의 범죄는 여전히 남는다는 인식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줄까지 서면서 위안소를 이용했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는 일인 것이다(115쪽). 병사와 달리 성폭력의 혐의가 빠지더라도 일본의 근대 국가의 기획에 편승했던 일본인 여성들의 문제 또한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세대의 평화를 위해 현재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셔널리즘과 젠더 문제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다.

4. 다시 '위안부' 피해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일본군'위안부'가 된 소녀들』을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경설명은 장황하고 인용 사례들 중 어떤 것은 선정적인 부분이 있다. 유례없이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를 낳은 시대적 맥락을 여러 범주로 나눠 설명하다 보니 비롯된 어려움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초반은 '위안부'가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런 경험이었는지 반복해서 드러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책 또한 '위안부'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가감 없이 실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맥락은 휘발하고 자못 선정적일 수 있는 참혹함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 저자가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잔 손택이 지적했듯이 타인

의 고통을 하나의 스펙터클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근대 사회 때문이다¹⁹⁾.

‘소녀’가 전면으로 배치된 서술 방식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맑고 순진한 소녀’가 일본군에 의해 ‘정조를 빼앗겼다’는 고정된 이미지를 생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양한 삶의 곁들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유효하기 때문이다²⁰⁾. 그리고 최대한 입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역사성을 채워 넣었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연구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치밀함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저자가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며 공감대의 온도를 맞추려고 애를 쓴 만큼 독자들, 특히 청소년/년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 층위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려 했던 저자의 의도는 충분히 채워진 것 같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에 접할 수 있는 대중서로서 이만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책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 관계자로서 15년의 개인사를 쌓아오면서, 최근에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던 것 같다. 강화되는 일본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따라 한국에서 마련된 이러저러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위안부’ 문제 관련 일에 대한 피로도도 높았던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가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얼룩진 여성들의 경험 앞에서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새겼던 순간도 생각났다. 일본정부는 피

19) 김은경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재원 옮김, 이후, 2004)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참혹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할 때 성적 피해라는 성격을 갖는 ‘위안부’ 역사가 자칫 관음증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스펙터클이 되어버린 폭력의 소비자”로서의 독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연민이 아니라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0, 198쪽).

20) 박정애, 앞의 논문, 253쪽.

해자 중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의 첫 단계로서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건 전쟁과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존재한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드러내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소망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법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보태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이것이 해결을 위한 '위안부' 문제 찾기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 2013, 35~72쪽.
- 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집, 2010, 177~203쪽.
- 박정애,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담다-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229~262쪽.
-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현실문화, 2014, 1~328쪽.
- 우에노 치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1~280쪽.
- 윤정옥 구술, 김수진 정리, 「“애들, 어떻게 됐나? 내 나이 스물, 딱 고 나이라고.”」,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104~137쪽.
-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포스트/ 식민국가의 역사적 현재성」, 『아세아연구』 제53권 3호, 2010, 41~78쪽.
- 이시카와 이쓰코 지음, 손지연 옮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 삼천리, 2014, 1~248쪽.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연구회 편,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1~389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2014, 1~456쪽.

Abstract

Between Passion and Cool: A Japanese Woman Deals with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Issue

Park, Jung-Ae

This article revolves around the revised edition of the book, *Girls Who Became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written by the Japanese poet and peace activist, ISHIKAWA Itsuko; it is an attempt to introduce and analyze it. At the same time, UENO Chizuko's book, *Politics of Memory Around the Comfort Women Issue: Rewriting Nationalism and Gender*, which purports to tackle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a Japanese woman's perspective, is also treated while constraining its discussion on the issues of nationalism and gender. This review is written with a specific objective in mind. That is, it aims to show what are the essential experiences and values that we should focus on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now—20 years after the issue has become a flashpoint.

Girls Who Became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is a short piece that is written in a comforting, letter-writing style. It, however, constantly moves back and forth in time and touches upon almost all the issues that are raised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so the content of the book does not lack in depth or breadth. It evaluates oral reports, historical backgrounds, etc. from every possible angle and thus treats all the relevant issues—such as imperialism, colonialism/occupation, war, human rights, gender,

ethnicity, class, and so on.

The fact that ISHIKAWA Itsuko is Japanese is one of the core elements that determines how the author approaches the 'comfort women' issue. She is constantly contrite and embarrassed 'as a Japanese person' while looking at the modern history of East Asia and the lives of victims that had largely been shaped by the Japanese war of aggression. This contrasts from the UENO Chizuko's perspective, which while taking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issue seriously—as a 'Japanese' 'woman'—is wary of equating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which she feel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apologizing as a Japanese'.

The author's attempt to reach her readers, especially the youth, to tell them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what many layered issues lie within, is quite successful as she navigates from being passionate to cool to reach the sweet-spot of consensus. Perhaps the greatest value of this book is that it reminds us how those who first started the 'comfort women' movement were approaching the issue. The first stag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 to erase the victim-centered history of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has been repeating like a mantra that their testimonials are not reliable. However, the fact that the traumatic experiences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imes of war exists cannot be denied. A possible key to unlock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is to be resolved and not just fought over, may lie in listening to what the victims have to say, reflecting upon them to analyze why the same issues continue to exist today and assessing what practical things we can

do to move closer to the desirable outcome for the victims.

Key words: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Trauma, Testimonials, Movemen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War-time Sexual Violence, War and Peace, Nationalism and Gender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